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정책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리 춘 철

자주성을 견지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속에서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관계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여왔으며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부단히 확대시켜왔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대외경제관계발전 정책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무역, 투자관계를 맺고 경제기술적협력을 심화시키고있으며 나라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혁명적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무엇보다도 자주성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이다.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성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자주적대를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위력을 강화한데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적대를 세워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철저히 자기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와 리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고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적대를 세워나갈것을 더욱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자주적대를 세우고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경제의 자립성과 위력을 강화하여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밀천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체의 경제적밀천이 준비되지 못하면 자기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대외경제교류를 진행할수 없으며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적대도 세울수 없다. 이것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의 원칙과 자력갱생의 원칙이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로 밀접히 통일되어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의 원칙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전제라면 자력갱생의 원칙은 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자주적대를 세우려는 립장과 관점이 서있지 않으면 자력갱생의 정신이 나올수 없고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경제적밀천을 튼튼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자주적대도 세울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을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도록 하고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한 기초우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자주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과 함께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주의원칙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대외경제관계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대외경제관계가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낡은 부르조아사상과 문화, 생활방식, 자본주의기업관리방법과 같이 사회주의위업수행과 배치되는 불건전한 요소들과도 접촉하게 된다. 경제적문제를 구실로 정치적문제를 흥정하거나 양보하여 불건전한 요소가 침습하면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는데 해독적작용을 미치게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교류》와 《원조》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개혁》, 《개방》을 강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공화국은 다른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사회주의를 침해하려는 그 어떤 정치경제

적부대조건도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있다.

실리주의원칙은 대외경제교류를 통하여 자기 나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실제적인 리득이 차례지게 하는 원칙이다.

우리 공화국은 대외경제관계에서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경제적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민족국가들 단위로 하여 경제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서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고 자체의 민족경제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외경제사업에서 경제적실리를 최대로 높여나가고있다.

이처럼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대외경제사업에 구현한것으로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외경제관계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고있는것이다.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그 발전방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외경제관계뿐만아니라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기본방향은 우선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민족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최첨단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있다.

공화국은 이미 기술혁명을 수행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년간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과학기술중시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세인을 경탄시키는 수많은 최첨단기술들이 연구개발되였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공화국이 경제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민족경제의 기술적토대를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로 끌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에서 건설하고있는 경제강국이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강국이기때문이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최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최첨단과학기술을 다 자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면 많은 시간과 품이 요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도는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과학기술은 원래 교류하는 과정에 빨리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을 인류의 공동재부라고 하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더우기 현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로화과정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기술갱신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을 다 자체로 연구, 개발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선진과학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시간과 품을 훨씬 줄일수 있다.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기본방향은 또한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 연료, 자재들을 해결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는 원유와 고무를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일부 원료, 연료, 자재들이 없거나 부족하다. 이러한 원자재들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부족되거나 없는 원료, 연료, 자재들을 국산화할수도 있다.

공화국에서는 수입원료, 연료의 대체기술과 절약기술을 개발하여 없거나 부족한 적지 않은 원자재들을 국산화하고있다. 최근 시기 공화국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수립하여 국내에 없는 폭스를 수입하지 않고서도 강철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빨리 늘어나는 원료, 연료에 대한 민족경제의 수요에 기술혁신에 의한 대체원료, 연료의 개발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때에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없거나 부족되는 원료, 연료를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발전시켜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원료, 연료들을 수입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외경제관계의 여러가지 형태들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공화국은 우선 수출품생산을 늘여 나라의 무역구조를 수출위주의 무역구조로 전환시켜나가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구조는 수출과 수입의 관계, 수출과 수입에서 각이한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관계, 수출입총액에서 거래대상나라들의 비중관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무역구조는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과 생산부문구조를 보여주며 경제의 자립성 정도를 반영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경제적잠재력과 위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수출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나라의 무역구조를 짧은 기간안에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 있다.

나라의 수출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수출위주의 무역구조로 전환하는데서 공화국은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의 패권을 쥔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의 수출을 늘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세계시장의 패권을 쥔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것은 자본주의시장에 쉽게 뚫고들어가는 많은 외화를 벌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세계시장의 패권을 쥔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자면 대외적수요가 높은 상품으로서 세계시장에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풍부하며 대량적으로 수출하여 세계시장을 독점할수 있는 품종을 옳게 선정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연, 아연, 마그네샤크링카, 흑연 등과 같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는 지표들을 수출독점지표로 설정하고 그 질을 높여 세계시장을 독점하도록 하기 위한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마그네샤크링카생산원료인 마그네사이트광석만 보아도 그 매장량은 세계마그네사이트광석 총매장량의 절반이상

에 달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해당하는 생산토대도 갖추어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마그네샤크링카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마그네샤크링카를 대외시장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면 세계마그네샤크링카시장을 독점할수 있다. 흑연 자원도 우리 나라에는 무진장할뿐아니라 그 질도 매우 좋다. 흑연의 순도를 높이고 대외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가지 흑연제품을 잘 만들어 수출하면 세계흑연시장을 독점할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위주의 무역구조로 전환하는데서 우리 공화국은 첨단기술제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공도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을 늘여나가는데 힘을 넣고있다.

첨단기술제품을 비롯하여 가공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대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며 보다 많은 외화를 거두어들일수 있다. 전반적수출상품구조를 자원수출로부터 2차, 3차가공품과 반제품수출로 전환시키며 첨단기술제품들의 수출비중을 높여나가야 나라의 무역구조를 수출위주의 무역구조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첨단기술제품을 중심으로 가공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여 무역구조를 수출위주의 무역구조로 전환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있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라 온나라에 최첨단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공화국은 우리 식의 창조방식으로 발전된 나라들이 30년간 이룩한 CNC기술의 발전을 불과 10년안에 비약하여 CNC기술의 패권을 쥐였다. 그리고 국방공업, 기계공업의 CNC화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전반적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서 대비약을 이룩하여 지식경제형강국건설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서 수출무역을 확대발전시켜 나라의 무역구조를 단기간내에 수입위주로부터 수출위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튼튼한 경제적토대로 되고 있다.

현시기 대외경제부문에서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합병, 합작과 경제무역지대운영에 힘을 넣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합영, 합작사업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끌어들이어 인민경제의 기술개선을 다그쳐나가는데 철저히 지향시켜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선진기술을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 여러가지 특혜를 보장해줌으로써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에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합영, 합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를 위한 법률적환경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주체73(1984)년 9월 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이 채택된 이래 우리 공화국에서는 합영, 합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법과 규정들을 채택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보충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나라 투자가들이 조선에 들어와 합영, 합작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나라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데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은 여러 분야에서 광범히 추진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적지 않은 합영, 합작대상들이 착공되고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주체96(2007)년 1월에 조선체신회사와 에쉴트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사이에 장기협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라 주체97(2008)년 12월부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체오합작회사가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체오합작회사는 오늘 평양시를 중심으로 3세대봉사를 진행하고있으며 선진적인 WCDMA방식의 3세대 휴대용전화봉사를 제공하고있다.

조로사이에서도 주체97(2008)년 4월에 모스크바에서 라선-두만강철도와 라진항의 개건과 관련한 두 나라 철도기관들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과 합영제약에 따라 라선-두만강철도와 라진항의 개건과 관련한 대상협조를 위한 모든 법적 및 기술적 문제들이 완전히 합의되어 실천단계에 들어갔으며 라선국제집합합영회사의 리사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어가는데 따라 주변나라들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투자가들이 합영, 합작의향을 표시하고있으며 합영, 합작의 규모와 분야도 날을 따라 확대되어가고있다.



합영, 합작사업과 함께 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에서 힘을 넣고있는 주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대 등 지리적유리성과 지대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류형의 경제무역지대들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경영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과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주체99(2010)년에 공화국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지대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만드는 사업들도 추진되고있다. 2010년 7월에는 투자대상들에 대한 심사승인,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협조, 특수경제지대사업과 같은 나라의 외국투자관련사업전반을 지도, 관리하고 국가적인 외국투자리용전략을 세우고 집행해나가는 기관으로서 합영투자위원회를 내왔으며 합영투자위원회산하에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투자대상소개, 투자설명회조직, 투자자문봉사를 비롯한 각종 투자유치활동도 진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경제무역지대개발운영사업은 새 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여러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을 계기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대한 조중 두나라의 공동개발, 공동관리가 실현됨으로써 경제무역지대운영사업은 보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조중 두나라의 최고령도자들사이에 이룩하신 합의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쌍방의 리익에 맞게 빠른 시일내에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오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개발총계획이 작성되고 항 및 철도개건사업이 본격화되고있으며 라진-원정도로개건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고 관광, 농업협조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황금평경제구에서도 세부계획이 작성된데 따라 국경통과지점의 확정 등 개발에 실제적으로 착수할수 있는 유리한 전제조건들이 마련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 공화국은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을 통하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체모에 맞게 변모시키고 대외경제관계가 철저히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대외경제관계발전정책은 오늘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범위에서 우리 공화국과 경제기술적협조와 련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무역, 합영, 합작, 과학기술교류 등 대외경제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세계무대에 적극 진출하여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공화국정부는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심화시켜나가게 될것이다.